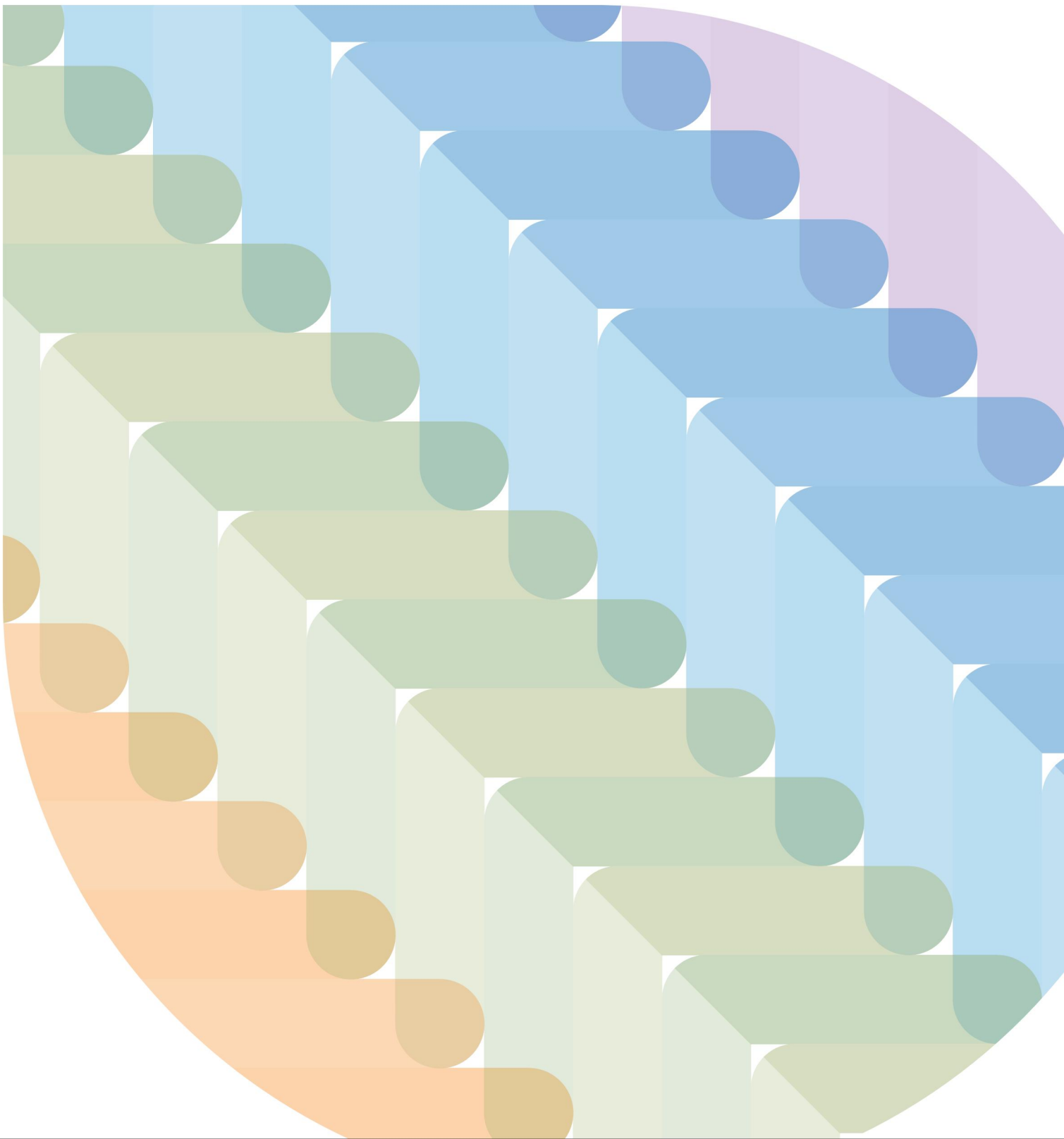


이슈 분석

# 제도와 불안전 고용

: 불안전 고용의 다양성과 확산의 국제비교, 주요 쟁점과 과제



## 제도와 불안전 고용

: 불안전 고용의 다양성과 확산의 국제비교, 주요 쟁점과 과제<sup>1)</sup>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 1. 서론

불안전 고용은 과거 몇 십 년 동안 정치사회적인 의미와 배경 속에서 증가해왔다. 많은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신축성(유연성)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킨다는 목표 하에 핵심적인 노동시장과 복지국가 제도들을 개혁했다. 그들은 노동법을 탈규제했고, 실업급여를 축소했으며, 보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증대시켰고, 실업자의 활성화(적극화, activation)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렸다(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Viebrock and Clasen, 2009; Heyes, 2011; Rubery, 2011 등을 참조).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임시고용, 파트타임노동, 1인 자영업(예를 들어, 피고용인 없는 자영업)과 같은 불안전 노동의 등장과 맞아 떨어졌다. 그러므로 노동시장과 복지국가 제도들이 불안전 고용의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예를 들어, Kalleberg, 2000, 2009; Giesecke, 2009; Leschke 2009; Kahn, 2012).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적절하게 이론화하고 조작화하며 검증하는 일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하지도 않다. 첫째, 불안전, 비표준, 비전형(atypical) 노동과 같은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들 사이에,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 속에서 일하는 개인들 사이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둘째, 이러한 이질성은 다양한 형태의 불안전 노동의 제도적 결정요인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셋째, 심각한 방법론적 문제들과 적절한 자료의 부족은 종종 인과관계를 결정하고, 제도적 복잡성을 설명하며, 제도와 인구학적 특성 사이에 상호작용을 풀어내고 해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여러 국가들과 인구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안전 고용의 변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관을 제공하고(II장), 다양한 제도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논의한

---

1) 이 글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2015-05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실태조사』의 제1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와 불안정 노동층 규모 추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불안전 노동/고용과 관련된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은 향후 출간되는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Ⅲ장). 다음으로 이 글은 기존 연구가 지니고 있는 주요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설명하고(Ⅳ장) 노동의 탈표준화에 대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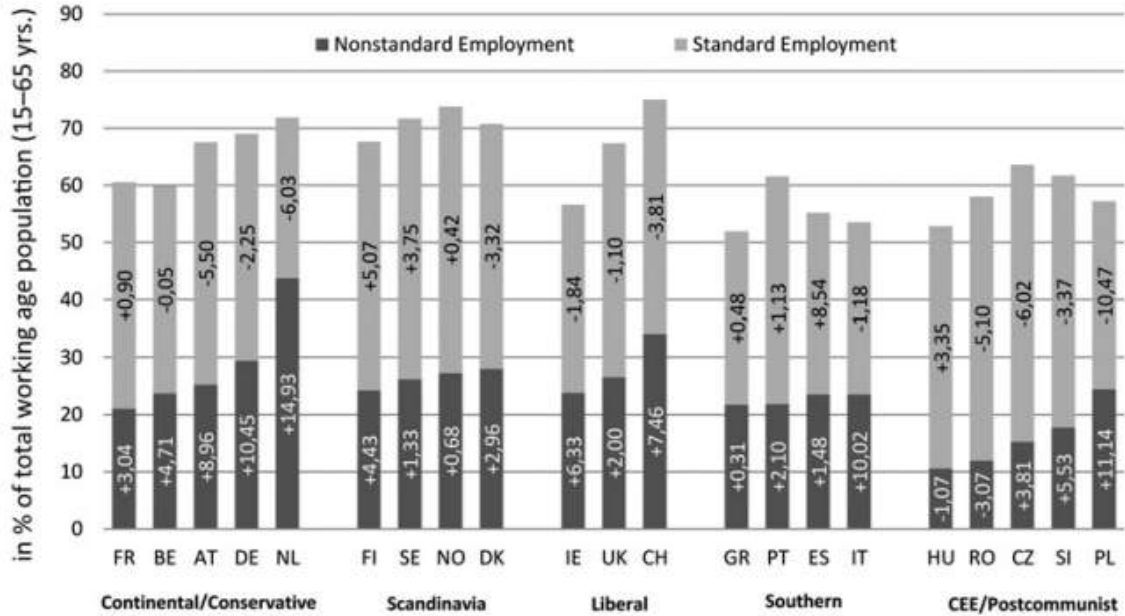
## Ⅱ. 불안전 고용의 다양성과 이론적 논의

### 1. 불안전 고용의 확산과 다양성

최근 몇 십 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세계의 변화들은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야기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표준고용(예를 들면, 상시·전일제 노동)은 여전히 지배적인 고용형태이지만, 불안전 노동(예를 들어, 임시고용, 파트타임노동, 1인 자영업)이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불안전 노동이 ‘정상화(normalization)’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은 복지체제(welfare regimes)로 구분한 유럽(보수주의/대륙 유럽, 스칸디나비아, 자유주의, 남부 유럽, 포스트공산주의/중동부 유럽)에서 1990년대 중반과 2011년 사이에 표준 고용 대 불안전 고용의 배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총 비중, 생산가능인구 총 비중 중에 표준 고용과 불안전 고용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1990년대 중반~2011년 동안 표준 고용과 불안전 고용의 변화 정도(%p)를 보여준다.

[그림 1]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불안전 고용의 도입과 확산은 국가들 사이에서 매우 다양하다(예를 들어, 헝가리 약 10%, 네덜란드 40% 이상)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표준 노동과 불안전 노동의 변화들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폴란드에서 표준 고용은 감소했던 반면, 불안전 고용은 증가했다. 그러나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표준 노동과 불안전 노동 모두는 동시에 성장했다. 셋째, 복지체제 내에서 불안전 노동의 도입과 확산에서 주목할 만한 변이가 존재한다. 생산가능인구 총 비중 중에 불안전 노동의 비율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남부 유럽 국가들 내에서 유사한 반면, 보수주의/대륙 유럽형 국가들과 동유럽/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불안전 고용의 도입과 확산은 매우 다양하다. 대륙 유럽형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는 불안전 고용의 비중이 20~30%를 차지한 반면, 네덜란드는 불완전(비표준) 노동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헝가리는 불안전 고용이 10%를 차지하고 폴란드는 거의 25%를 차지할 만큼 그 차이 또한 상당하다.

[그림 1] 표준 고용 대 비표준 고용(1996/97~2011)  
: 복지국가 체제 간/내 도입과 확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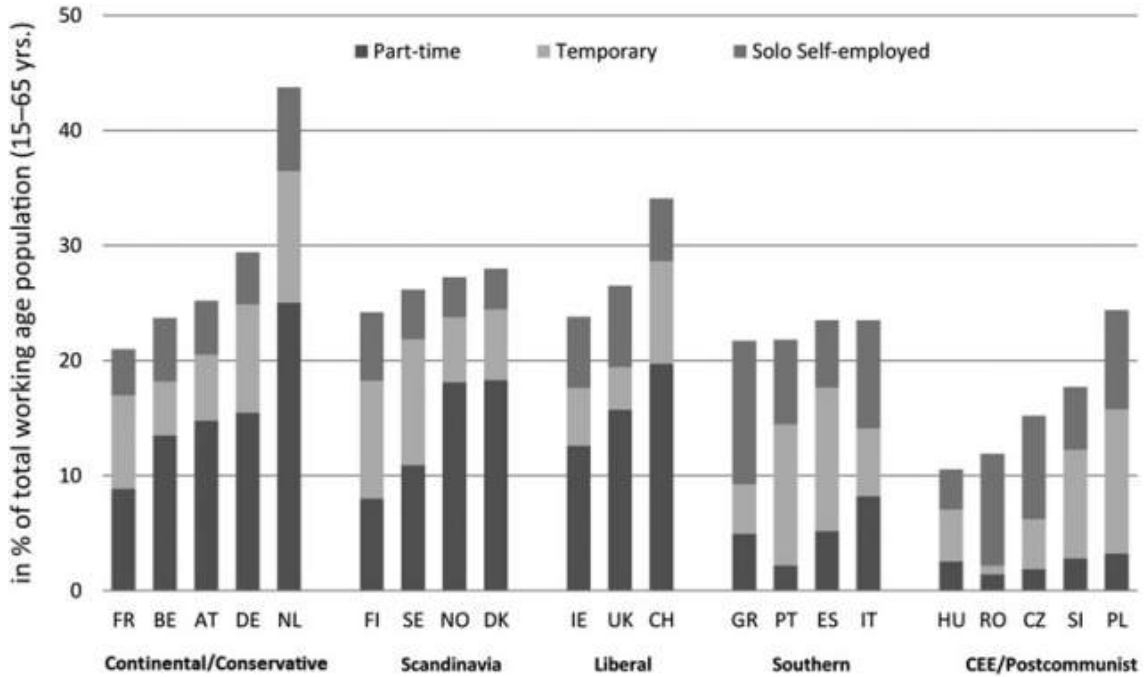


출처: Allmendinger *et al.* (2013)

주: [그림 1]은 유럽경제활동인구조사(European Labor Force Survey) 자료를 기초하고 있다. 표본은 생산 가능인구(15~64세)를 포함한다. 표준 고용과 비표준 고용에 대한 정의는 아멘딩거 외(Allmendinger *et al.*, 2013)를 따르고 있다. 실업자,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자, 직업훈련 참가자들은 고용에서 배제된다. 단체생활 영역(수도원/수녀원, 병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과 의무복무 중인 군인들은 기준 표본에서 배제된다.

[그림 2]는 국가들 간에 그리고 복지체제들 내에서 존재하는 불안전 고용 규모의 이질성과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불안전 고용의 세부 형태들의 규모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루마니아, 이탈리아, 체코에서 1인 자영업은 불안전 노동의 지배적인 형태인 반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에서는 임시고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파트타임 고용이 불안전 노동의 지배적인 형태이다(Allmendinger *et al.*, 2013). 달리 말하자면, ‘전형적인’ 복지체제론(Esping-Andersen, 1990; Esping-Andersen and Regini, 2000)은 이러한 국가 간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다. 남부 유럽형 복지체제에 속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임시고용이 불안전 노동의 지배적인 형태인 반면, 똑같이 남부 유럽형 복지체제에 속하는 그리스에서는 1인 자영업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스칸디나비아 사민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파트타임노동이 지배적이지만, 핀란드에서는 임시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2] 복지국가 체제 내/간 비표준 고용의 세부 형태들의 도입과 확산 정도 (2011)



출처: Allmendinger *et al.* (2013)

주: 자료의 종류와 특성은 [그림 1]과 동일하다.

## 2. 이론적 논의: 불안정성의 증가와 이중화의 과정

학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 간 변이와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 대개 두 종류의 서사(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이중화[dualization])를 원용하였다. 과거에도 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간의 균열(cleavages)로 특징지어지기는 했지만(Piore and Doeringer, 1971; Reich *et al.*, 1973; Kalleberg and Sørensen, 1979), 노동은 수많은 개인들에게 점점 더 불안정한 것이 되었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실업의 위험, 임금,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에서의 불평등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상당히 증가하였다(Rodgers and Rodgers, 1989; Rueda, 2007; Kalleberg, 2011; Standing, 2011; Emmenegger *et al.*, 2012).

이러한 경향성은 그 자체로 충분히 문제가 되고, 많은 불안전 노동이 속하게 되는 범주, 즉 2차 시장(두 번째 층위의) 일자리에서의 고용이 서로 다른 인구집단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그 결과들은 악화된다(예를 들어, 임시고용은 Gash and McGinnity, 2007, 파트타임노동은 OECD 2010b, 1인 자영업은 Buschoff and Protsch, 2008 참조). 임시고용은 주로 청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럽에서 노년노동보다 청년노동에서 임시계약의 비중이 크다(Allmendinger *et al.*, 2013). 대조적으로 파트타임노동은 매우 성별화된 현상이다. 유럽에서 루마니아 또는 체코처럼 파트타임노동이 가장 낮은 비율(각각 생산가능인구의 1.4%와 2.9% 차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조차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4배 더 많이 파트타임노동에서

일하고 있다. 젠더 비율이 역전되기는 하지만 유사한 패턴은 1인 자영업에서도 볼 수 있다. 스위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남성이 1인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은 여성이 1인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보다 적어도 두 배가 된다. 게다가 서로 다른 형태의 불안전 고용은 점점 더 서로 결합하고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약 19%), 스웨덴(약 12%), 스페인(약 6%), 핀란드(약 6%)의 많은 청년들은 임시계약을 한 파트타임에서 일하고 있다(Allmendinger *et al.*, 2013).

각 국에서의 이러한 발전과 노동시장의 결과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일부의 학자들은 전반적인 불안정성(*precariousness*)의 증가를 언급했던 반면(Bourdieu, 1998; Fevre, 2007; Kalleberg, 2011), 다른 학자들은 이중화(*dualization*)의 과정이 일자리와 노동자 사이에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Davidsson and Naczyk, 2009; Emmenegger *et al.*, 2012).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한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불안전 고용의 도입과 발전에서 국가 수준의 차이에 대한 제도적인 설명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불안정성의 증가를 언급하는 접근법은 불안전 노동과 관련된 불안정성(*insecurity*)을 포착한다면, 이중화 이론은 정규 일자리와 불안전 일자리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 증대되고 있는 분할(예를 들어, 여성 대 남성, 청년 대 노년, 저숙련 대 고숙련)의 구성적 효과에 통찰력을 제공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들은 전형적으로 하나 혹은 몇 가지 차원에서 안전성(*security*)이 부족한 것으로 기술된다.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기간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소득과 승진 전망이 형편없고, 노동법, 단체교섭제도, 복지국가 급여에 의해 충분히 포괄되지 않는다(Rodgers and Rodgers, 1989; Standing, 2011). 불안정성 이론은 경제적인 경쟁의 증가, 경쟁 증가와 관련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사회적 보호 제도의 해체, 노동조합 힘의 쇠퇴로 인해 노동이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한다(Bourdieu, 1998; Kalleberg, 2011; Standing, 2011; Thelen, 2014).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상시·전일제 고용도 저임금과 질 낮은 일자리 안전과 연관될 수 있지만(Cranford and Vosko, 2006; Bernhardt and Krause, 2014), 불안정성 이론에 근거한 연구들은 불안전 노동에 대한 분석이 중심적인 관심사이다. 이러한 초점과 관심은 임시, 파트타임, 1인 자영업의 낮은 보수와 불안정성을 포괄해내는 ‘불안정한(*precarious*)/불안정한(*insecure*)’ 노동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에 반영된다(예를 들어, Nienhüser, 2005; Standing, 2011). 파트타임노동은 충분한 임금과 연금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임시노동과 1인 자영업도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임시노동과 1인 자영업은 개인들의 주관적인 안녕에 대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며 개인들의 가족계획과 주택시장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상시적인 일자리의 부족과 관련된다(Kalleberg, 2009, 2011; Standing, 2011).

대조적으로 이중화에 대한 연구들은 노동시장의 분절성을 강조했다. 이중화에 대한 초기 문헌은 고용규제와 단체교섭이 어떻게 내부자로서 고용된 노동자들과 외부자로서 실업 상태의 노동자 사이의 이중성을 창출했는가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의 문헌들은 비정형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외부자로 되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예를 들어, 개관에 대해서는 Davidsson and Naczyk, 2009를 참조; Eichhorst and Marx, 2012; Häusermann and Schwander, 2012). ‘신축적인(*flexible*)’ 노동, ‘한시적인(*contingent*)’ 노동과 같은 용어들에는 핵심 노동력은 일자리

안전성과 다양한 급여를 제공받는 반면 주변(margins)에 있는 피고용인들은 사용자들에게 신축성(flexibility)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화된 급여를 박탈당하고 (독일의 ‘미니잡 종사자’ 또는 미국의 파트타임노동자들처럼) 보건의료 또는 여타의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받드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화는 핵심 노동력(즉, 선거 승리와 조직 성공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조, 조직의 명백한 의도적 결과일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서로 다른 인구집단들에게 차별적인(그리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영향을 끼치는 외견상 중립적인 정책의 결과가 될 수 있다(Allan and Scruggs, 2004; Estevez-Abe, 2005, 2006; Rueda 2005; DiPrete *et al.*, 2006; Polavieja 2006; Palier and Thelen 2010; Eichhorst and Marx, 2011; Fleckenstein *et al.*, 2011; Emmenegger *et al.*, 2012).

요약하면, 오늘날 상당수의 개인들과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일하는 개인들은 불안전 고용으로 노동하고 있다. 국가들과 인구집단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포착해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불안전 고용의 세 가지 세부 형태들(임시노동, 파트타임 고용, 1인 자영업)을 구분하고 세부 형태들의 동시적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안전 고용과 복지체제 내의 커다란 이질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노동시장 경향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폭 넓은 분석틀과 불안정성 이론과 이중화 이론을 포함한 이론적 설명과 기술은 제도특수적인 분석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III. 불안전 고용의 세부 형태들

#### 1. 임시고용

임시고용은 제한된 기간의 계약과 일자리를 말한다. 즉 기간제 계약, 임시파견노동, 계절적 일자리 또는 교육훈련 계약<sup>2)</sup> 등이 이에 해당한다(Eurostat Statistics, OECD database). 임시고용과 연관된 위험과 불확실성(낮은 일자리 안전성,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 또는 조직화된 급여로부터 배제)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불편함을 주지만, 가정을 꾸리려고 계획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심하게 작용한다(Kalleberg, 2000; Nienhüser, 2005). 임시계약은 건설 산업과 서비스부문(接客업, 도소매업, 공공서비스 등 포함) 산업에서 가장 일반적이다(Cebrián *et al.*, 2003; Fagan and Ward, 2003; Polavieja, 2006; Baranowska and Gebel, 2010). 임시고용의 도입/확산은 경기순환에 따라 변동한다(Holmlund and Storrie, 2002; OECD, 2012). 특히 상시 계약을 맺는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그러하다(Bentolila and Bertola, 1990; Polavieja, 2006). 임시노동자들은 폭넓은 제약 없이 고용될 수 있다(Kahn, 2010).

임시고용의 도입과 확산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주요한 제도적 결정요인들은 임시노동자들

2) 소수의 국가들(독일, 덴마크, 스위스와 같은)에서만 존재하는 직업훈련 계약과 관련된 임시고용은 다른 형태의 임시고용과 그 특성에 있어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을 고용하고 상시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규제들이다. 이론적으로 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해고보호와 임시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은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노동력의 대다수와 연관되어야 한다. 해고 절차, 예고 기간, 퇴직금에 관한 법적 규제는 상시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안전성을 제공하고, 이는 사용자들에게 일시 해고(lay-offs)에 대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록 만든다. 따라서 상시노동자들은 잠재적으로 고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Lazear, 1990; Nickell, 1997; Siebert, 1997; Lindbeck and Snower, 2001; OECD, 2004).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임시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상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유지하였다(Cahuc and Postel-Vinay, 2002; Giesecke and Groß, 2003; DiPrete *et al.*, 2006; Barbieri, 2009). 이러한 개혁은 유동적인 기업수요에 대처하고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자들에게 신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고용규제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그 연구가 부분적인 탈규제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전체로서 고용보호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뒤섞여있다. 부분적인 탈규제에 대한 연구들은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종합 자료(OECD, 2004)와 국가 간 종단 자료(Kahn, 2010; Gebel and Giesecke, 2011)에 기초한 연구는 임시계약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국가들에서 임시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탈리아 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은 임시노동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임시계약, 특히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시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을 증대시켰을지라도, 그것이 고용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oeri and Garibaldi, 2007; Barbieri and Scherer, 2009). 그러므로 부분적인 탈규제는 취약한 노동시장 집단들을 의도적으로 포섭하기보다는 상시계약을 임시계약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분할을 증대시켰을지도 모른다(Eichhorst and Marx, 2012).

한편, 전체적인 고용보호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확고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다. 종합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은 상시고용이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가들에서 임시노동자 부문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던 반면(Grubb and Wells, 1993; Booth *et al.*, 2002; OECD, 2004; Polavieja, 2006; Hevenstone, 2010), 서로 다른 노동시장 집단들 사이에 임시계약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 수준의 자료를 결합한 연구들은 이러한 관계를 일관되게 확인해주지 못했다(Kahn, 2007; Baranowska and Gebel, 201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체계 또한 직·간접적으로 임시고용에서의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Eichhorst and Marx, 2012: 85). 한편으로, 노동조합은 불안정 고용의 지속적인 확산이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신축화에 반대할 수 있다(Eichhorst and Marx, 2011).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은 핵심 노동력의 일자리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부에서의 신축화를 지원할 수도 있다(Rubery, 1989; Palier and Thelen, 2010). 게다가 노동조합은 임시고용의 도입과 확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혹은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들(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의 이해관계보다는 상시노동자들(예를 들어, 노동시장 내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면, 그리고 만약 협상된 임금 수준이 기업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숙련도가 낮

은 노동자들에게 제안한 임금 수준을 초과한다면,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상시계약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Lindbeck and Snower, 1988). 수많은 연구들은 더 높은 노조 조직률 또는 더 넓은 단체교섭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특히 젊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단체교섭 적용 범위가 넓은 국가들에서 임시계약이 더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Kahn, 2007; Baranowska and Gebel, 2010; Hevenstone,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일반적으로 내부자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는 주장은 결합이 있다.

보다 엄밀한 주장은 한 국가의 임금구조와 단체교섭 시스템의 신축성과 관련된다(Polavieja, 2006; Baccaro and Simoni, 2007). 단체교섭 시스템의 중앙집중화와 조정은 노조가 서로 다른 집단의 노동자와 산업을 대변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폴라비에야(J. G. Polavieja)는 거시 수준의 자료에 기초해서 임시고용은 미국의 경우처럼 교섭이 매우 탈중앙집중화되고 조정되지 않거나, 아일랜드와 같이 매우 중앙집중화되고 조정된 국가들에서 덜 도입된다는 점을 밝혀냈다(Polavieja, 2006, 또한 Baccaro and Simoni, 2007을 참조). 두 가지 경우는 임금 신축성을 보장하고 따라서 임시노동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조적으로, 단체교섭협약이 산업 수준에서 결정되는 국가들(예를 들면, 오늘날의 독일 또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불리한 임금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앙집중화된 시스템보다 더 어렵고, 불균형성을 바로잡는 것이 탈중앙집중화된 시스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는 이러한 국가들에서 더 많은 임시고용의 도입과 확산을 설명할 수 있다(각 국가들의 교섭시스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Calmfors, 1993; OECD, 1997, ch. 3; Traxler, 2003; Polavieja, 2003, 2006).

법정최저임금 규제는 사용자가 상시계약보다는 임시계약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규제는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이승윤(Lee, S. S.)은 질적 비교분석에 기초해서 한편으로는 낮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부재와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약한 규제 또는 상시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규제의 결합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국가들에서 (임시노동과 파트타임노동으로 규정되는) 불안전 고용이 더 도입되고 확산된다는 점을 발견했다(Lee, 2013a, b). 이승윤은 만약 임시노동자들이 손쉽게 고용된다면, 낮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부재는 기업들이 표준적인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불안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Lee, 2013a, b). 이러한 상보적인 관계는 특히 하향 임금 경직성에 의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는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Eichhorst and Marx, 2012).

실업보험 기여금처럼 비임금 노동비용 또한 임시고용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업보험은 사용자가 비용절감 전략으로서 임시계약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유인책을 제공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다(Kahn, 2010; Hevenstone, 2010). 관대한 실업보험은 상시계약을 임시계약으로 대체하려는 사용자의 전략을 보조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부분적인 탈규제의 효과는 서로를 강화할 수도 있다(Kahn, 2010).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여전히 드물고 뒤섞여있다.

## 2. 파트타임 고용

국제비교에서 파트타임노동은 대개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의 정규 노동시간을 일하는 고용으로 규정된다(OECD, 2010b: 252). 국가특수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구분점(cutoffs)을 사용하거나(Kalleberg, 2000: 343), 자아 속성에 기초한 파트타임노동자들을 설명해왔다(van Bastelaer *et al.*, 1997). 파트타임노동을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는 이유가 있다. 한편으로, 파트타임 고용은 피고용인들이 노동을 가족의 의무, 교육, 그리고 공동체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은퇴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다른 한편으로, 파트타임 고용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차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사용자들은 내부적 신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사용자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파트타임 일자리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Tilly, 1996). 따라서 보건의료, 노인요양, 유통, 금융, 접객, 보험, 부동산과 같은 서비스 산업들은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축적인 노동시간을 허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축적인 노동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가장 많은 파트타임노동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Sightler and Adams, 1999). 임시고용의 경우처럼, 파트타임노동은 경기순환에 따라 변동적이다. 경기 상승기에 노동수요 증가는 ‘산업예비군’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파트타임노동자들은 전일제 일자리로 바꿀 수도 있다(Blossfeld and Hakim, 1997: 8; Hevenstone, 2010). 경제 침체기에 정부와 조직들은 인원 감축(downsizing)을 피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van Audenrode, 1994; Vroman and Brusentsev, 2009; Calavrezo *et al.*, 2010; Shelton, 2011; Brenke *et al.*, 2013).

파트타임노동자의 권리와 파트타임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노동시간 규제와 법률상의 규정은 파트타임노동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된다.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일제 고용에 대해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따라서 파트타임노동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 한계점을 낮추기 때문에, 파트타임노동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트타임노동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Rubery *et al.*, 1998; Sheridan, 2004; Lee *et al.*, 2007; Ibanez, 2011).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35시간 노동주의 도입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의 평준화를 이끌었고 파트타임노동의 감소를 가져왔다(Fagnani and Letablier, 2006). 더욱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파트타임노동자들이 급여 삭감, 휴가 시간,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 등에서 조직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장을 마련해왔다(예를 들어, 2001년부터 유럽노동시간 감독지시서[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1994년부터 국제노동기구 파트타임노동 협약[ILO Part-Time Work Convention]). 이는 노동자들에게 파트타임 고용을 더욱 매력적이게 만들었고 따라서 잠재적으로는 (자발적) 파트타임노동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비슷하게 파트타임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부가급여 또는 공적인 사회보험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으로부터 배제될 때, (비자발적) 파트타임노동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게 되기

때문에 증가될 수도 있다(Houseman, 1995; Fagan and O'Reilly, 1998; Rubery *et al.*, 1998; Smith *et al.*, 1998; Fagan and Ward, 2003; Hoffmann and Walwei, 2003; Steiner and Wrohlich, 2005; Buddelmeyer *et al.*, 2008).

소득과세 시스템 또한 파트타임노동의 도입과 확산을 결정한다(Dingeldey, 2001; Rubery, 2001: 153; Jaumotte, 2004; Dearing *et al.*, 2007; OECD, 2010b; Steiber and Haas, 2012). 소득세에 대한 공동신고 부과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자신의 배우자들보다 적게 버는 기혼자들(대개 여성들)은 사실상 전일제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이게 된다. 예를 들어, 디어링 외(Dearing *et al.*, 2007)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엄마들 사이에 전일제 고용의 차이가 국가의 과세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과세가 부과된다. 반면, 독일에서는 기혼자 부부의 소득이 분리되고 그 후에 과세가 부과된다. 이는 1차 소득자에 대한 더 낮은 한계세율과 2차 소득자에 대한 더 높은 한계세율로 야기한다. 하우스먼(S. N. Houseman)과 오사와(M. Osawa)는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Houseman and Osawa, 1998).

양질의 저렴한 보육의 이용가능성은 파트타임노동의 도입과 확산의 또 다른 결정요인이다(Daune-Richard, 1998; OECD, 2010b).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은 엄마들의 고용률과 노동시간과 정(+)적으로 관련된다. 보육이 부족하고 비싸거나 질이 낮을 때, 엄마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다(Del Boca and Vuri, 2007; Breunig *et al.*, 2011; Haan and Wrohlich, 2011; Hennig *et al.*, 2012). 비록 소수의 연구들이 저렴한 보육의 이용가능성과 파트타임노동의 도입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토했지만, 여성의 노동시간(Fagan, 2002)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Pettit and Hook, 2005; Uunk *et al.*, 2005; Del Boca *et al.*, 2009; Steiber and Haas, 2009)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저렴한 보육과 엄마들의 노동시간 사이에 정(+)적인 관계는 여러 국가들에서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Powell, 1997; Andr n, 2003; Wrohlich, 2006; Kornstad and Thoresen, 2007; Del Boca and Vuri, 2007; Gong *et al.*, 2010).

노동조합의 힘은 파트타임노동의 또 다른 결정요인이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제도가 파트타임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도, 그리고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파트타임노동의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기초를 이루는 이론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포괄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노조들은 핵심 노동력에 비해 더 적은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 부문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조들은 파트타임노동자들의 수를 제한하거나 파트타임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라스무센 외(E. Rasmussen *et al.*)는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에 대한 OECD 종합자료를 활용하여 노조가 단체교섭 협약이나 양자내지 삼자 간 협의를 통해 파트타임노동자들의 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asmussen *et al.*, 2004). 헤벤스톤(D. Hevenstone)은 OECD와 Eurostat 자료를 합동으로 종합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파업과 직장폐쇄의 수가 감소됨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개인이 증가한다는 점을 밝혀냈다(Hevenstone, 2010).

### 3. 1인 자영업자

영세 또는 1인 자영업, 자영 노동, 1인 기업과 같은 용어는 모두 프리랜서와 피고용인이 없는 여타 자영업자의 노동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자영업이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고 잠재적으로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반면, 1인 자영업은 저소득(Smeaton, 2003), 불충분한 건강보험, 소규모의 노령연금(Buschoff and Protsch, 2008)과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자영업이 특정 고객에 실질적인 종속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따라서 ‘종속적 자영업자’ 또는 ‘의사 자영업자’라 불리는 개인들에 적용된다(Kautonen *et al.*, 2010: 113). 자영업의 도입률이 높은 부문은 농업, 도소매업, 유통업,接客업,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OECD, 2000: 159-160),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문에서 유사하게 1인 자영업자가 집중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 경제성장은 개인들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흡수(pull)할 수 있다. 반대로 어려운 경제적 조건은 개인들을 자영업으로 배출(push)하는 경향이 있다(Storey, 1991; Meager, 1992; Blanchflower, 2000; Clark and Drinkwater, 2000; Moore and Mueller, 2002; Hughes, 2003; Torrini, 2005).

1인 자영업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또 다른 주요한 설명은 사업의 시작과 운영과 연관된 비용과 관련된다. 시장 진입에 대한 낮은 장벽, 자본에 대한 손쉬운 접근, 높은 기대수익은 개인들을 자영업으로 흡수할 수 있다(Parker, 2004; van Stel *et al.*, 2007; Braunerhjelm and Henrekson, 2013).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행정적 요구조건들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세금을 낮추며, R&D에 투자함으로써, 그리고 소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실업자 또는 청년에게 창업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자 했다(Meager, 1996; OECD, 2010a; World Bank, 2012).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기회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실업자에 대한 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평가는 보조금이 자영업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적이라고 주장한다(Cueto and Mato, 2006; Baumgartner and Caliendo, 2008). 반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보조금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Meager *et al.*, 2003). 그러나 사업운영으로부터 얻는 잠재적 수익과 창업비용 모두 1인 자영업자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OECD 패널 자료에 기초한 연구들은 세금이 낮고 탈세에 대한 기회가 많을 때 자영업이 많아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Fölster, 2002; Torrini, 2005).

실업급여 또는 보육지원과 같은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1인) 자영업을 육성하는 배출 요인의 중요한 사례이다. 해고 이후에 실업자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창업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안녕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실행 가능한 선택지이다(Storey, 1991; Staber and Bogenhold, 1993; Moore and Mueller, 2002; Malchow-Moller *et al.*, 2010). 비슷하게 보육 지원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신축적인 노동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일과 가족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Budig, 2006; Wellington, 2006).

자영업에 대한 또 하나의 적절한 거시 수준의 예측 변수는 해고로부터 피고용인에 대한 보호이다. 해고보호 수준이 더 높으면 정규 일자리를 그만두게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하

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창업의 기회비용을 간접적으로 증대시킨다. 엄격한 해고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노동시장 외부자들, 즉 실업자 또는 무능력자에게 창업은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예를 들면, 토리니(R. Torrini)는 OECD와 Eurostat의 자료를 분석할 때 해고보호와 자영업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반면(Torrini, 2005), 롭슨(M. Robson)과 판 스텔 외(A. van Stel *et al.*)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감시(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자료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서 더욱 더 경직된 노동시장규제가 자영업과 부(-)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밝혀냈다(Robson, 2003; van Stel *et al.*, 2007). 반대로, OECD와 Eurostat의 자료를 활용한 헤벤스톤(D. Hevenstone)은 정(+)적인 연관성을 밝혀내었다(Hevenstone, 2010). 로만 외(C. Román *et al.*)는 유럽공동체가구패널(ECHP) 자료 분석에 기초해서 해고보호의 강도가 고용에서 ‘종속적인 자영업’으로의 이행에 대해 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자영업에는 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Román *et al.*, 2011a, b). 유럽가치관 조사(European Value Survey)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부문간 자료를 활용한 바우만과 브렌들(F. Bauman and T. Brändle)은 강력한 해고보호를 보유한 국가들에서 고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노동자들보다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보여주었다(Bauman and Brändle, 2012).

#### 4. 요약과 소결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임시고용, 파트타임노동, 1인 자영업의 제도적 결정요인은 여러 가지이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지금까지 임시고용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첫 번째 칸)은 고용보호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임시노동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제도의 상보적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고용보호, 임시노동자들에 대한 완화된 진입 장벽, 산업수준의 단체 교섭, 그리고 최저임금 규제는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이러한 제도들은 서로를 강화하는가 또는 제도의 효과는 부차적인 것인가? 상시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보호와 노조의 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적어도 특정 인구 집단들과 산업들에 대해서 매우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이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은 Bentolila and Dolado, 1994 참조,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는 Baranowska and Gebel, 2010; Kahn, 2007 참조).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상보성과 상호작용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연구들(두 번째 칸)은 주로 노동시간 규제의 역할, 소득과세 시스템, 보육의 이용가능성을 분석해왔다. 이러한 연구 초점은 파트타임노동이 자녀가 있는 여성들 사이에 가장 많이 도입되고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몇몇 연구들은 파트타임노동의 국가 간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의 요인들을 구분하고자 했다(Gash, 2008b). 파트타임노동자들의 상당 부분은 독일의 경우처럼 파트타임노

등을 두 번째 층위의 일자리(second-tier job)로 만드는 공동 소득과세, 불충분한 교육, 소득 분기점의 조합으로 인한 것인가 또는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나타내는 높은 최저임금과 파트타임노동자들에 대한 동등권 법제의 조합의 결과인가(Hevenstone, 2010)? 그러므로 정책과 규제는 파트타임노동의 도입과 확산뿐만 아니라 파트타임노동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파트타임 노동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표 1>의 세 번째 칸은 1인 자영업의 제도적 결정요인을 요약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1인 자영업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1인 자영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Román *et al.*, 2011a, b; van Stel *et al.*, 2014). 1인 자영업자들은 비교 자료에서 설명되기 어렵고 표본 크기도 너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들 사이의 상보적 관계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들과 실천자들이 개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제도적 형태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1인 자영업의 높은 비중은 엄격한 고용보호, 높은 법정최저임금, 산업수준의 단체교섭 시스템의 조합 때문인가(Hevenstone, 2010)? 어떤 제도적 형태들이 루마니아와 이탈리아에서 1인 자영업의 높은 비중을 설명할 수 있는가? 게다가 개인들이 자기 소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가 또는 다른 대안적인 고용기회가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 자영업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들이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 1>은 기존 연구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던 세 가지 형태의 불안전 노동과 그것들의 제도적 결정요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관계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시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들(임시계약의 탈규제, 관대한 실업급여)은 자영업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리스의 경우처럼 임시노동자들의 고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면, 사용자들은 프리랜서들을 고용함으로써 높은 고용보호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Eichhorst and Marx, 2012). 반대로 임시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약하면, 사용자들은 임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높은 고용보호를 피할 수 있다(Buddelmeyer *et al.*, 2008). 따라서 이러한 상보성과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형태의 불안전 고용이 기능적 등가물로 출현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들에서 제도들의 상보성과 상호작용을 다루어야 한다.

〈표 1〉 불안전 고용의 제도적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증거

불안전 고용 제도적 결정요인	임시고용	파트타임고용	(1인) 자영업
법적 규제	-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보호 수준 ▪ (+): Grubb and Wells, 1993; Booth <i>et al.</i> , 2002; OECD, 2004; Polavieja, 2006 ▪ 청년노동자, 여성, 이주자에 대해서 (+): Kahn, 2007 ▪ 일반적으로 또는 특히 청년노동자에 대해서 (~): Baranowska and Gebel, 2010	- 파트타임으로 노동할 권리 ▪ (+): Lee <i>et al.</i> , 2007; Ibanez, 2011) - 파트타임노동자에 대한 동등권(‘좋은’ 파트타임) ▪ (+): Rubery <i>et al.</i> , 1998; Fagan and Ward, 2003; Buddelmeyer <i>et al.</i> , 2008 - 사회적 급여로부터 배제(‘나쁜’ 또는 주변적인 파트타임) ▪ (+): Houseman, 1995; Fagan and O’Reilly, 1998; Houseman and Osawa, 1998; Smith <i>et al.</i> , 1998; Hoffmann and Walwei, 2003; Steiner and Wrohlich, 2005 - 법정노동시간 기준 저하 ▪ (-): Fagnani and Letablier, 2006	-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보호 수준 ▪ (+): Hevenstone, 2010 ▪ (~): Torrini, 2005 ▪ 종속적인 고용에서 종속적인 자영업으로의 이행에 대해 (+): Román <i>et al.</i> , 2011a, b ▪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고속련 노동자에 대해 (-): Robson, 2003; van Stel <i>et al.</i> , 2007; Román <i>et al.</i> , 2011a, b; Bauman and Brändle, 2012
	- 고용보호에 대한 부분적인 탈규제 ▪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저숙련 노동자에 대해 (+): Boeri and Garibaldi, 2007; Barbieri and Scherer, 2009; Hevenstone, 2010; Kahn, 2010; Gebel and Giesecke, 2011		- 고용보호에 대한 부분적인 탈규제 ▪ (-): Hevenstone, 2010
노사관계 시스템	- 파업과 직장폐쇄 ▪ (~): Hevenstone, 2010	- 파업과 직장폐쇄 ▪ (-): Hevenstone, 2010	- 파업과 직장폐쇄 ▪ (~): Hevenstone, 2010
	- 노조 조직률 ▪ (+): Hevenstone, 2010; Kahn, 2007;		- 노조 조직률 ▪ (~): Hevenstone, 2010
	- 단체교섭 적용 범위 ▪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 Kahn, 2007; Baranowska and Gebel, 2010; Hevenstone, 2010		
	- 중앙집중화와 조정 ▪ U자형 관계: Polavieja, 2006		

불완전 고용 제도적 결정요인	임시고용	파트타임고용	(1인) 자영업
과세제도		- 공동 소득과세 시스템 ▪ (+): Dearing <i>et al.</i> , 2007; 혼합된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는 Dingeldey, 2001을 참조; Jaumotte, 2004; OECD, 2010b; Rubery, 2001: 153	- 신사업 창업에 대한 과세율 ▪ (-): Parker, 2004; van Stel <i>et al.</i> , 2007; Braunerhjelm and Henrekson, 2013
			- 조세 회피 기회 ▪ (+): Fölster, 2002; Torrini, 2005
사회정책	- 실업급여 ▪ (+): Hevenstone, 2010	- 실업급여 ▪ (~): Hevenstone, 2010	- 실업급여 ▪ (~): Hevenstone, 2010 ▪ (-): Storey, 1991; Staber and Bogenhold, 1993; Moore and Mueller, 2002; Malchow-Moller <i>et al.</i> , 2010
			- 창업 보조금 ▪ (+): Cueto and Mato, 2006; Baumgartner and Caliendo, 2008 ▪ 청년에 대해서 (~): Meager <i>et al.</i> , 2003
		- 보육의 이용가능성 ▪ 참여와 노동시간에 대해서 (+): Andrés, 2003; Wrohlich, 2006; Del Boca and Vuri, 2007; Kornstad and Thoresen, 2007	- 보육의 이용가능성 ▪ (-): Budig, 2006; Wellington, 2006
		- 보육 비용 ▪ 참여와 노동시간에 대해서 (-): Powell, 1997; Andrés, 2003; Wrohlich, 2006; Del Boca and Vuri, 2007; Gong <i>et al.</i> , 2010; OECD, 2010b	

주: (+)는 정적인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 (-)는 부적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 (~)은 유의미하지 않은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이고, 빈 칸은 경험적 증거의 부재를 의미한다.

## IV. 방법론적 과제들과 남아 있는 문제들

불안전 고용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적 접근들은 다양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비정형(atypical) 고용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노동시장과 제도에 대한 세세한 기술과 분석(Nardone, 1995), 또는 소수의 국가들과 정책레짐에 대한 비교(Houseman, 1995; Fagan and O'Reilly, 1998; Houseman and Osawa, 1998; Pfau-Effinger, 1998; Smith *et al.*, 1998; Dingeldey, 2001; Fagan and Ward, 2003)를 제공했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개별 국가들 또는 소수의 국가들에 대한 종단연구(Barbieri, 2009; Sightler and Adams, 1999; Cassirer, 2003; Boeri and Garibaldi, 2007; Gash, 2008b), 종합자료에 기초한 다수사례 비교분석(large-*N* comparisons, Robson, 2003; Buddelmeyer *et al.*, 2005, 2008; van Stel *et al.*, 2007; Buschoff and Protsch, 2008; Hevenstone, 2010; Allmendinger *et al.*, 2013), 다수준 접근법(multilevel approaches, Kahn, 2007; Baranowska and Gebel, 2010; Gebel and Giesecke, 2011; Román *et al.*, 2011a),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d fuzzy-set analyses, Lee, 2013a, b)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접근법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들은 특정한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네 가지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모든 학문 분과와 방법론 분야의 연구자들이 겪는 첫 번째 문제는 양질의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과 관련된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거시 수준의 적당한 지표들을 종종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OECD 외부의 국가들을 배제하기도 하고 이상적인 대리변수에 미달하는 변수에 의존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보육의 비용과 이용가능성보다는 보육 등록자수에 의존하는 경우, Keck *et al.*, 2009). 더욱이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부문 간 자료 또는 종합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인과성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연구결과들은 주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장기간 동안 몇몇 국가들을 비교하거나, 한 시점에서의 다수 국가들을 비교하곤 한다. 유럽공동체가구패널(ECHP), 유럽연합-소득생활조건통계(EU-SILC), 미국의 소득동학패널조사(PSID),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조사(SOEP)와 같은 종단자료들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법론 분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거시 수준의 지표들을 발전시키고, 다수의 국가들과 장기간의 종단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또 다른 과제는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제도들과 다른 맥락적 요인들(국가의 경제적 상황, 직종과 산업의 특성 등)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규제와 정책은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 간에 매우 상황적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있다(Esping-Andersen, 1990; Hall and Soskice, 2001; Hicks and Kenworthy, 2003). 제도와 맥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형태의 불안전 고용의 출현에 영향을 준다.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제도적 상보성과 상호작용을 포착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들이 실제로 실행되기에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분석에서 거의 고려되지 못했다. 거시 수준 조건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불안전 고용의 도입과 확산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최

근의 몇몇 시도들은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활용했다(Lee, 2013a, b). 이러한 시도는 제도들 간, 제도들과 맥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방법론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식은 바란노프스카(A. Baranowska)와 게벨(M. Gebel) 또는 칸(L. M. Kahn)이 청년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해고보호와 노동조합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했던 것처럼(Baranowska and Gebel, 2010; Kahn, 2007), 노동자 하위집단들을 위해 폭넓게 선택된 제도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또한 제도들이 인구집단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전 고용에 대한 연구들은 점차적으로 제도들이 특정한 인구집단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예를 들어, 청년노동자들이 임시일자리에 고용될 가능성,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 등)을 분석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이러한 집단들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곤 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련의 동일한 제도들이 고숙련 여성들과 저숙련 여성들 사이에 파트타임노동의 도입과 확산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제로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이 동일한 이유로 파트타임노동을 선택했다고 실제로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1인 자영업과 임시 일자리에 적용될 수 있다. 불안정(비표준) 고용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도가 다양한 인구집단들 간, 인구집단들 내에서 불안전 노동의 도입과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변동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불안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간 비교연구자들은 인구집단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력 부족 시기에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파트타임 계약이나 임시 계약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비슷하게 어떤 인구집단의 상대적 크기와 경제부문은 제도가 불안전 노동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하다. 예를 들면, 학력수준의 상승은 불안전 고용에서 집단특수적인 노동 위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될 때, 고숙련 노동자들은 임시 계약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구성적 효과(compositional effects)를 통계 분석으로 적절하게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종합 자료에 기초한 연구들은 다양한 인구집단들의 규모 변화와 차이들을 고려할 수 없다. 반대로 다층적 수준의 분석들에서 이러한 문제는 국가 수준에서 변이가 노동력 구성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공변량이 서로 다르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루어질 수 있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따라서 다수사례 비교(large- $N$  comparisons)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변량 기울기 회귀식(random slope models)을 사용하고, 국가 수준에서 집단 크기를 예측 변수로 추가하거나 2단계 회귀분석(two-step regression) 접근법을 적용해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Gebel and Giesecke, 2011;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기술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참조).

불안정 고용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마지막 과제는 문화적 특성과 ‘비공식적’ 제도의 역할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일부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남성들이 남성

생계부양자라는 규범을 고착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있는 국가들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시간을 줄여 일하거나 전혀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Blossfeld and Hakim, 1997; Pfau-Effinger, 1998: 177-198; Raghuram *et al.*, 2001; Fortin, 2005; van der Lippe *et al.*, 2011).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젠더특수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개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Tijdens, 2002; Lee *et al.*, 2007, ch. 4; Thébaud, 2010; Wielers and Raven, 2013). 비슷하게 1인 자영업에 영향을 주는 흡수요인과 배출요인은 문화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만약 자영업이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된다면, 창업은 장려될 것이다(Weiss and Fershtman, 1998; Tolbert and Hiatt, 2010).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은 규범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 간 차이와 정책과 규제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전시키고 검증해야 한다.

## V. 요약 및 결론

이 글은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국가 제도가 불안전 고용의 도입과 확산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불안정(비표준) 고용의 세부 형태인 임시고용, 파트타임 고용, 1인 자영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임시고용에 대한 제도적 설명들은 기간이 제한된 일자리의 증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 규제(핵심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보호를 유지하면서 주변에서의 신축화)의 유의미성을 지적하였다.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문헌들은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제도적 요인들(노동시간 규제, 과세 시스템, 보육의 이용가능성 등)의 큰 변이를 강조했다. 1인 자영업에 대한 연구들은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 과세 시스템, 창업 보조금과 같은 제도적인 흡인과 배출 요인들에 관심을 가졌다. 적절한 제도적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큰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제도적 형태들이 불안전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 분야는 실질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불안전 노동에 대한 향후 연구의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불안전 고용이 최근 몇 십 년 동안에 상당히 증가하였고 점점 더 특정한 인구집단에 대해 ‘표준적’ 또는 ‘전형적’인 것이 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기존 용어와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쟁과 새로운 용어를 찾고자 하는 학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안적 용어들(신축적인[flexible], 불안정한[precarious], 불안전한[insecure] 노동)은 모두 부족하다(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개관은 Kalleberg, 2000 참조). 불안전 고용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 또는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Kalleberg *et al.*, 2000: 273). 임시노동은 상시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Gash, 2008a), 많은 파트타임노동은 안정적인 고용인 경우도 있으며(Rodgers and Rodgers, 1989; Auer, 2006), 자영업자는 종종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Kalleberg, 2000). 따라서 용어와 개념정의에 대한 재설정과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안전(비전형) 고용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이론적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분과학문들로부터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왜 제도가 서로 다른 인구집단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들을 관찰해야 하는가? 불안전 고용 계약의 당사자들과 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는 정치적 형세는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이중화는 태도, 선호, 또는 투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정치과정에 환류되는가(Rueda, 2005, 2007; Emmenegger 2009a, b)? 예를 들어, 불안전 고용에 대한 연구들은 자유화(liberalization, Thelen, 2014)와 이중화(dualization, Emmenegger *et al.*, 2012)에 대한 최근 저작들의 성과를 더 발전시킴으로써 사회불평등 연구와 비교정치경제 연구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는 표준 고용과의 비교를 통해서 불안전 고용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들이 불안정한가 아닌가는 실질 소득, 이러한 일자리에서의 시간 소비, 가족 구성원 또는 복지국가 제도에 의한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달려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불안전 노동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되고 경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불안전 고용은 개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가족과 복지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정(비표준) 고용은 괜찮은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2차적인(두 번째 층위의) 일자리인가? 불안전 고용과 관련된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증대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의 개인과 가구에 대한 비교 정보와 종단적인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네 번째 과제는 제도와 불안전 고용에 대한 적절한 조작화 및 측정과 관련된다.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양질의 자료가 요구된다. 연구자들은 임시고용, (비)자발적 파트타임노동, 1인 자영업, 종속적 자영업자의 다양한 하위 형태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측정의 오류를 피하고 타당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표와 거시 수준의 비교 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상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규칙과 비공식적인 관행을 구별하고 특정한 프로그램과 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과 범위에 대한 측정을 제공하는 지표들을 포함할 것이다.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인과적인 주장을 검증하고, 서로 다른 노동시장 지위들 간에 노동자들의 이행을 추적하며, 다양한 제도적 환경에서 불안전 고용의 결과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국가비교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개발과 수집에 대해서 국가를 가로지르는 장기간의 개입이 필수적일 것이다.

다섯째, 제도들은 불안전 고용이 야기하는 장기간의 결과들을 형성한다. 제도가 일자리 안정성, 실업의 위험, 소득보장에 대한 불평등을 장·단기에 걸쳐 어느 정도나 완화하는가, 또는 강화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비교연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사회보장 시스템과 최근의 정책 이중화 과정이 불안전 일자리의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 영역의 행위자들이 참여해야 할 부분이다. 표준적인 노동에서 불안전 노동으로의 경험적인 전환과 계속해서 증가하는 불안정한 개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는 정책적 목표는 아직까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인 표준을 수반하지 못했다. 우리는 불안전 노동의 결과들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과 사회에 대한 불안전 노동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 논

쟁이 필요하다. 끝.

## 참고문헌

- Allan, James P. and Lyle Scruggs. (2004). "Political Partisanship and Welfare State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496-512.
- Allmendinger, Jutta, Lena Hipp and Stefan Stuth. (2013). *Atypical Employment in Europe 1996-2011*. Discussion Paper No. 1169 P 2013-003. August. Berlin. WZB.
- Andr n, Thomas. (2003). "The Choice of Paid Childcare, Welfare, and Labor Supply of Single Mothers." *Labour Economics*. 10(2): 133-147.
- Auer, Peter. (2006). "Protected Mobility for Employment and Decent Work: Labour Market Security in a Globalized World."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8(1): 21-40.
- Baccaro, Lucio and Macro Simoni. (2007). "Centralized Wage Bargaining and the "Celtic Tiger" Phenomenon."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46(3): 426-455.
- Baranowska, Aana and Michale Gebel. (2010). "The Determinants of Youth Temporary Employment in the Enlarged Europe: Do Labour Market Institutions Matter?" *European Societies*. 12(3): 367-390.
- Barbieri, Paolo. (2009). "Flexible Employment and Inequality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6): 621-628.
- Barbieri, Paolo and Stefani Scherer. (2009). "Labour Market Flexibi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in Ital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6): 677-692.
- Baumann, Florian and Tobias Br ndle. (2012). "Self-employment, Educational Attainment an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Labour Economics*. 19(6): 846-859.
- Baumgartner, Hans J. and Macro Caliendo. (2008). "Turning Unemployment into Self-employment: Effectiveness of Two Start-up Programm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70(3): 347-373.
- Bentolila, Samuel and Bertola, G. (1990). "Firing Costs and Labour Demand: How Bad Is Eurosclerosi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7(3): 381-402.
- Bentolila, Samuel and Juan J. Dolado. (1994). "Labour Flexibility and Wages: Lessons from Spain." *Economic Policy*. 9(1): 55-99.
- Bernhardt, Janine and Alexandra Krause. (2014). "Flexibility, Performance and Perceptions of Job Security: A Comparison of East and West German Employees in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s." *Work, Employment & Society*. 28(2): 285-304.

- Blanchflower, David G. (2000). "Self-employment in OECD Countries." *Labour Economics*. 7(5): 471-505.
- Blossfeld, Hans-Peter and Catherine Hakim. (1997). *Between Equalization and Marginalization. Women Working Part-Tim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eri, Tito and Pietro Garibaldi. (2007). "Two Tier Reforms of Employment Protection: A Honeymoon Effect?" *Economic Journal*. 117(521): F357-F385.
- Booth, Alison L., Marco Francesconi and Jeff Frank. (2002). "Temporary Jobs: Stepping Stones or Dead Ends?" *Economic Journal*. 112(480): F189-F213.
- Bourdieu, Pierre. (1998). "Job Insecurity is Everywhere Now." In Pierre Bourdieu. (eds.). *Acts of Resistance: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rket*. New York: New Press, pp. 81-87.
- Braunerhjelm, Pontus and Magnus Henrekson. (2013). "Entrepreneurship, Institutions, and Economic Dynamism: Lessons from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2(1): 107-130.
- Brenke, Karl, Ulf Rinne and Klaus F. Zimmermann. (2013). "Short-time work: The German answer to the Great Recessi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2(2): 287-305.
- Breunig, Robert, Andrew Weiss, Chikako Yamauchi, Xiaodong Gong and Joseph Mercante. (2011). "Child Care Availability, Quality and Affordability: Are Local Problems Related to Labour Supply?" *Economic Record*. 87(276): 109-124.
- Buddelmeyer, Hielke, Gilles Mourre and Melanie Ward-Warmedinger. (2005). "Part-Time Work in EU Countries: Labour Market Mobility, Entry and Exit." Frankfurt am Main, Germany.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460.
- Buddelmeyer, Hielke, Gilles Mourre and Melanie Ward. (2008). "Why Do Europeans Work Part-Time?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Frankfurt am Main, Germany,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872.
- Budig, Michelle J. (2006). "Intersections on the Road to Self-employment: Gender, Family and Occupational Class." *Social Forces*. 84(4): 2223-2239.
- Buschoff, Karin Schulze and Paula Protsch. (2008). "(A-)typical and (In-)secure?: Social Protection and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in Europ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1(4): 51-73.
- Cahuc, Pierre and Fabien Postel-Vinay. (2002). "Temporary Jobs,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Labour Economics*. 9(1): 63-91.
- Calavrezo, Oana, Richard Duhautois and Emmanuelle Walkowiak. (2010). "Short-Time Compensation and Establishment Exit. An Empirical Analysis with French Data." Discussion paper series,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No. 4989, Bonn, IZA.
- Calmfors, Lars. (1993). "Centralisation of Wage Bargaining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 A Survey.” *OECD Economic Studies*. 21: 161-191.
- Cassirer, Naomi. (2003). “Change in Part-time Work across Occupations, 1970-1990.”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0: 145-184.
- Cebrián, Inmaculada, Gloria Moreno, Manuela Samek, Renata Semenza and Luis Toharia. (2003). “Nonstandard Work in Italy and Spain: The Quest for Flexibility at the Margin in Two Supposedly Rigid Labor Markets.” In Susan N. Houseman and Machiko Osawa. (eds). *Nonstandard Work in Developed Economies: Causes and Consequence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p. 89-130.
- Clark, Kenneth and Stephen Drinkwater. (2000). “Pushed Out or Pulled In?: Self-employment among Ethnic Minorities in England and Wales.” *Labour Economics*. 7(5): 603-628.
- Cranford, Cynthia J. and Leah F. Vosko. (2006). “Conceptualizing Precarious Employment: Mapping Wage Work across Social Location and Occupational Context.” In Leah F. Vosko. (eds.). *Precarious Employment: Understanding Labour Market Insecurity in Canada*.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pp. 43-66.
- Cueto, Begona and Javier Mato. (2006). “An Analysis of Self-employment Subsidies with Duration Models.” *Applied Economics*. 38(1): 23-32.
- Daune-Richard, Anne-Marie. (1998). “How Does the ‘Social Effect’ Shape the Use of Part-time Work in France, the UK and Sweden?” In Jacqueline O’Reilly and Colette Fagan. (eds.). *Part-time Prospe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t-Time Work in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Rim*. London: Routledge. pp. 214-231.
- Davidsson, Johan and Marek Naczyk. (2009). “The Ins and Outs of Dualisation. A Literature Review.” REC-WP 02/20-09. Working Papers on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Welfare in Europe. RECOWE Publication, Dissemination and Dialogue Centre, Edinburgh
- Dearing, Helene, Helmut Hofer, Christine Lietz, Rudolf Winter-Ebmer and Katharina Wrohlich. (2007). “Why Are Mothers Working Longer Hours in Austria than in Germany?: A Comparative Microsimulation Analysis.” *Fiscal Studies*. 28(4): 463-495.
- Del Boca, Daniela and Daniela Vuri. (2007). “The Mismatch between Employment and Child Care in Italy: The Impact of Rationing.”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4): 805-832.
- Del Boca, Daniela, Silvia Pasquay and Chiara Pronzatoz. (2009). “Motherhood and Market Work Decisions in Institutional Context: A European Perspective.” *Oxford Economic Papers*. 61(suppl 1): i147-i171.
- Dingeldey, Irene. (2001). “European Tax Systems and Their Impact on Family Employment Patterns.” *Journal of Social Policy*. 30(4): 653-672.
- DiPrete, Thomas A., Dominique Goux, Eric Maurin, Amelie Quesnel-Vallee. (2006). “Work and Pay in Flexible and Regulated Labor Markets: A Generalized Perspective on

- Institutional Evolution and Inequality Trends in Europe and the U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4(3): 311-332.
- Eichhorst, Werner and Paul Marx. (2011). “Reforming German Labour Market Institutions: A Dual Path to Flexibilit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1): 73-87.
- Eichhorst, Werner and Paul Marx. (2012).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In Patrick Emmenegger, Silja Häusermann, Bruno Palier and Martin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73-99.
- Emmenegger, Patrick. (2009a). “Specificity vs. Replace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Skills and Preferences for Job Security Regulations.” *Socio-Economic Review*. 7(3): 407-430.
- Emmenegger, Patrick. (2009b). “Barriers to Entry: Insider/Outsider Politics and the Determinants of Job Security Regulation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2): 131-146.
- Emmenegger, Patrick, Silja Häusermann, Bruno Palier and Martin Seeleib-Kaiser. (eds.). (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and Marino Regini. (eds.). (2000). *Why Deregulate Labour Marke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stevez-Abe, Margaita. (2005). “Gender Bias in Skills and Social Policies: The Varieties of Capitalism Perspective on Sex Segregation.”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2(2): 180-215.
- Estevez-Abe, Margaita. (2006). “Gendering the Varieties of Capitalism.” *World Politics*. 59(2): 142-175.
- Fagan, Colette. (2002). “How Many Hours?: Work Time Regimes and Preferences in European Countries.” In Graham Crow and Sue Heath. (eds.). *Social Conceptions of Time: Structure & Process of Work in Everyday Life*. Basingstoke: Palgrave. pp. 69-87.
- Fagan, Colette and Jacqueline O’Reilly. (1998). “Conceptualizing Part-time Work.” In Jacqueline O’Reilly and Colette Fagan. (eds.). *Part-time Prospe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t-Time Work in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Rim*. London: Routledge. pp. 1-32.
- Fagan, Colette and Kevin Ward. (2003). “Regulatory Convergence?: Nonstandard Work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In Susan N. Houseman and Machiko Osawa. (eds.). *Nonstandard Work in Developed Economies: Causes and Consequence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p. 53-88.

- Fagnani, Jeanne and Marie Thérèse Letablier. (2006). "The French 35-hour Working Law and the Work-life Balance of Parents: Friend or Foe?" In Diane Perrons, Colette Fagan, Kath Ray and Kevin Ward. (eds.). *Gender Divisions and Working Time in the New Economy: Changing Patterns of Work, Care and Public Polic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Glos. Edward Elgar. pp. 79-90.
- Fevre, Ralph. (2007). "Employment Insecurity and Social Theory: The Power of Nightmares." *Work, Employment & Society*. 21(3): 517-535.
- Fleckenstein, Timo, Adam M. Saunders and Martin Seeleib-Kaiser. (2011). "The Dual Transformation of Social Protection and Human Capital Comparing Britain and German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4(12): 1622-1650.
- Fölster, Stefan. (2002). "Do Lower Taxes Stimulate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19(2): 135-145.
- Fortin, Nicole M. (2005).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Labour-market Outcomes of Women across OECD Countr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3): 416-438.
- Gash, Vanessa. (2008a). "Bridge or Trap?: Temporary Workers' Transitions to Unemployment and to the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5): 651-668.
- Gash, Vanessa. (2008b). "Preference or Constraint?: Part-time Workers' Transitions in Denmark,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ork, Employment & Society*. 22(4): 655-674.
- Gash, Vanessa and Frances McGinnity. (2007). "Fixed-Term Contracts—The New European Inequality?: Comparing Men and Women in West Germany and France." *Socio-Economic Review*. 5(3): 467-496.
- Gebel, Michael and Johannes Giesecke. (2011).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Inequality: The Changing Skill-based Temporary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isks in Europe." *Social Forces*. 90(1): 17-40.
- Giesecke, Johannes. (2009). "Socio-economic Risks of Atypical Employment Relationships: Evidence from the German Labour Marke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6): 629-646.
- Giesecke, Johannes and Martin Groß. (2003). "Temporary Employment: Chance or Risk?"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2): 161-177.
- Gong, Xiaodong, Robert Breunig and Anthony King. (2010). "How Responsive Is Female Labour Supply to Child Care Costs: New Australian Estimates." IZA Discussion Paper No. 5119, pp. 1-59.
- Grubb, David and William Wells. (1993). "Employment Regulation and Patterns of Work in EC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21. Winter. OECD. pp. 7-58.
- Haan, Peter and Katharina Wrohlich. (2011). "Can Child Care Policy Encourage Employment

- and Fertility?: Evidence from a Structural Model.” *Labour Economics*. 18(4): 498-512.
- Hall, Peter A. and David Soskice.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äusermann, Silja and Hanna Schwander. (2012). “Varieties of Dualiza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Insider-Outsider Divides across Regimes.” In Patrick Emmenegger, Silja Häusermann, Bruno Palier and Martin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7-51.
- Hennig, Marina, Stefan Stuth, Mareike Ebach and Anna Erika Hägglund. (2012). “How Do Employed Women Perceive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A Seven-country Comparison of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2(9/10): 513-529.
- Hevenstone, Debra. (2010). “National Context and Atypical Employment.” *International Sociology*. 25(3): 315-347.
- Heyes, Jason. (2011). “Flexicurity,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Jobs Crisis.”, *Work, Employment & Society*. 25(4): 642-657.
- Hicks, Alexander and Lane Kenworthy. (2003). “Varieties of Welfare Capitalism.” *Socio-Economic Review*. 1(1): 27-61.
- Hoffmann, Edeltraud and Ulrich Walwei. (2003). “The Change in Work Arrangements in Denmark and Germany.” In Susan N. Houseman and Machiko Osawa. (eds.). *Nonstandard Work in Developed Economies: Causes and Consequence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p. 15-51.
- Holmlund, Bertil and Donald Storrie. (2002). “Temporary Work in Turbulent Times: The Swedish Experience.” *Economic Journal*. 112(480): F245-F269.
- Houseman, Susan N.. (1995). “Part-time Employment in Europe and Japan.” *Journal of Labor Research*. 16(3): 249-262.
- Houseman, Susan N. and Machiko Osawa. (1998). “What Is the Nature of Part-time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Jacqueline O’Reilly and Colette Fagan. (eds.). *Part-time Prospe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t-Time Work in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Rim*. London: Routledge. pp. 232-251.
- Hughes, Karen D.. (2003). “Pushed or Pulled?: Women’s Entry into Self-employ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Gender, Work & Organization*. 10(4): 433-454.
- Ibanez, Zyab. (2011). “Part-time: Beyond Second Best? Access to Part-time Employment: The Cases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in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Time & Society*. 20(2): 171-196.
- Jaumotte, Florence. (2004).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7. pp. 52-108.

- Kahn, Lawrence M.. (2007). "The Impact of Employment Protection Mandates on Demographic Temporary Employment Patterns: International Microeconomic Evidence." *Economic Journal*. 117(521): F333-F356.
- Kahn, Lawrence M.. (2010). "Employment Protection Reforms, Employment and the Incidence of Temporary Jobs in Europe: 1996-2001." *Labour Economics*. 17(1): 1-15.
- Kahn, Lawrence M.. (2012). "Labor Market Policy: A Comparative View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Labor Market Flexibili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1(1): 94-110.
- Kalleberg, Arne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341-365.
- Kalleberg, Arne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 Kalleberg, Arne L.. (2011).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 to 2000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alleberg, Arne L. and Aage B. Sørensen. (1979). "The Sociology of Labor Marke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5: 351-379.
- Kalleberg, Arne L., Barbara F. Reskin and Ken Hudson. (2000). "Bad Jobs in America: Standard and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and Job 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2): 256-278.
- Kautonen, Teemu, Simon Down, Friederike Welter, Pekka Vainio, Jenni Palmroos, Kai Althoff and Susanne Kolb. (2010). "'Involuntary Self-employment'" as a Public Policy Issue: A Cross-country European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16(2): 112-129.
- Keck, Wolfgang, Philipp Hessel and Chiara Saraceno. (2009). "Database on Intergenerational Policy Indicators: Methodological Report." Berlin: Social Science Center Berlin (WZB). Multilinks Project. pp. 1-87.
- Kornstad, Tom and Thor O. Thoresen. (2007). "A Discrete Choice Model for Labor Supply and Childcar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4): 781-803.
- Lazear, Edward P.. (1990). "Job Security Provisions and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3): 699-726.
- Lee, Sophia Seung-yoon. (2013a). "Examining Policy Configurations as Conditions for Long-term Unemployment and Non-standar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Using Fuzzy-set Analysis." *Quality & Quantity*. 47(6): 3521-3536.
- Lee, Sophia Seung-yoon. (2013b). "High Non-standard Employment R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alyzing Policy Configurations with Fuzzy-set/QCA." *Policy and*

- Society*. 32(4): 333-344.
- Lee, Sangheon, Deirdre McCann and Jon C. Messenger. (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 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Leschke, Janine. (2009). "The Segmentation Potential of Non-standard Employment: A Four-country Comparison of Mobility Patter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30(7): 692-716.
- Lindbeck, Assar and Dennis J. Snower. (1988). *The Insider-Outsider Theory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ambridge, MA/London: MIT Press.
- Lindbeck, Assar and Dennis J. Snower. (2001). "Insiders versus Outsid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1): 165-188.
- Malchow-Møller, Nikolaj, James R. Markusen and Jan R. Skaksen. (2010). "Labour Market Institutions, Learning and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35(1): 35-52.
- Meager, Nigel. (1992). "Does Unemployment Lead to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4(2): 87-103.
- Meager, Nigel. (1996). "From Unemployment to Self-employment: Labour Market Policies for Business Start-up." In Günther Schmid, Jacqueline O'Reilly and Klaus Schöman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Labour Market Policy and Evalu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pp. 489-519.
- Meager, Nigel, Peter Bates and Marc Cowling. (2003). "An Evaluation of Business Start-Up Support for Young People."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86(1): 59-72.
- Moore, Carol S. and Richard E. Mueller. (2002). "The Transition from Paid to Self-employment in Canada: The Importance of Push Factors." *Applied Economics*. 34(6): 791-801.
- Nardone, Thomas. (1995). "Part-time Employment: Reasons, Demographics, and Trends." *Journal of Labor Research*. 16(3): 275-292.
- Nickell, Stephen. (1997).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3): 55-74.
- Nienhüser, Werner. (2005). "Flexible Work = Atypical Work = Precarious Work?: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Management Revue*. 16(3): 299-303.
- OECD. (1997). *OECD Employment Outlook 1997*.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00).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04).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10a). *Assessmen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mes for SMEs' and Entrepreneurs' Access to Finance in the Global Crisis*.  
[http://www.oecd.org/cfe/smes/Assessment\\_Government\\_Support\\_Programmes.pdf](http://www.oecd.org/cfe/smes/Assessment_Government_Support_Programmes.pdf).
- OECD. (2010b). "How Good Is Part-time Work?" In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 2010: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Paris: OECD Publications. pp. 211-266.
- OECD. (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Paris: OECD Publications.
- Palier, Bruno and Kathleen Thelen. (2010). "Institutionalizing Dualism: Complementarities and Change in France and Germany." *Politics & Society*. 38(1): 119-148.
- Parker, Simon C.. (2004). *The Economics of Self-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tit, Becky and Jennifer Hook. (2005). "The Structure of Women's Employ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Forces*. 84(2): 779-801.
- Pfau-Effinger, Birgit. (1998). "Culture or Structure as Explanations for Differences in Part-time Work in Germany, Finland and the Netherlands." In Jacqueline O'Reilly and Colette Fagan. (eds.). *Part-time Prospe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t-Time Work in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Rim*. London, Routledge. pp. 177-198.
- Piore, Micjhael J. and Peter B. Doeringer.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 DC Heath.
- Polavieja, Javier G.. (2003). "Temporary Contracts and Labour Market Segmentation in Spain: An Employment-rent Approach."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5): 501-517.
- Polavieja, Javier G.. (2006). "The Incidence of Temporary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Why Is Spain Differen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1): 61-78.
- Powell, Lisa M.. (1997). "The Impact of Child Care Costs on the Labour Supply of Married Mothers: Evidence from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0(3): 577-594.
- Rabe-Hesketh, Sophia and Anders Skrondal. (2012).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vol. II. Categorical Responses, Counts, and Survival*. 3<sup>rd</sup> edition.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 Raghuram, Sumita, Manuel London and Henrik Holt Larsen. (2001). "Flexible Employment Practices in Europe: Country versus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2(5): 738-753.
- Rasmussen, Erling, Jens Lind and Jelle Visser. (2004). "Divergence in Part-time Work in New Zealand, the Netherlands and Denmark."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4): 637-658.
- Reich, Michael, David M. Gordon and Richard C. Edwards. (1973). "Dual Labor Markets: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3(2): 359-365.
- Robson, Martin T.. (2003). "Does Stricter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Promote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21(3): 309-319.
- Rodgers, Gerry and Janine Rodgers. (eds.). (1989). *Prek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omán, Concepción, Emilio Congregado and José María Millán. (2011a). "The Role of Labor

- Market Institutions on Entrepreneurship Dynamics in Times of Crisis: Evidence from European Countries.” In Gary D. Libecap and Sherry Hoskinson. (eds.). *Entrepreneurship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 Regional Economies: Determinants and Policy Implications*. Bingley, Emerald Group, pp. 161-183.
- Román, Concepción, Emilio Congregado and José María Millán. (2011b). “Dependent Self-employment as a Way to Evade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37(3): 363-392.
- Rubery, Jill. (1989). “Precarious forms of work in the United Kingdom.” In Gerry Rodgers and Janine Rodgers. (eds.).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pp. 49-74.
- Rubery, Jill. (2001). “Equal Opportunities and Employment Policy.” In Peter Auer. (eds.). *Changing Labour Markets in Europe: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p. 116-183.
- Rubery, Jill. (2011). “Reconstruction amid Deconstruction: Or Why We Need More of the Social in European Social Models.” *Work, Employment & Society*. 25(4): 658-674.
- Rubery, Jill, Mark Smith and Colette Fagan. (1998). “National Working-time Regimes and Equal Opportunities.” *Feminist Economics*. 4(1): 71-101.
- Rueda, David. (2005).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61-74.
- Rueda, David. (2007). *Social Democracy Inside Out: Government Partisanship, Insiders, and Outsider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elton, Alison M.. (2011). “Compensated Work Sharing Arrangements (Short-time Compensation) as an Alternative to Layoff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Washington, DC.
- Sheridan, Alison. (2004). “Chronic Presenteeism: The Multiple Dimensions to Men’s Absence from Part-time Work.” *Gender, Work & Organization*. 11(2): 207-225.
- Siebert, Horst. (1997). “Labor Market Rigidities: At the Root of Unemployment in Europe.”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3): 37-54.
- Sightler, Kevin W. and Janet S. Adams. (1999). “Differences between Stayers and Leavers among Part-time Workers.”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11(1): 110-125.
- Smeaton, Deborah. (2003). “Self-employed Workers: Calling the Shots or Hesitant Independents? A Consideration of the Trends.” *Work Employment & Society*. 17(2): 379-391.
- Smith, Mark, Colette Fagan and Jill Rubery. (1998). “Where and Why Is Part-time Work Growing in Europe.” In Jacqueline O’Reilly and Colette Fagan. (eds.). *Part-time Prospe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t-Time Work in Europe, North America*

- and the Pacific Rim*. London, Routledge. pp. 35-56.
- Staber, Udo and Dieter Bögenhold. (1993). "Self-employment: A Study of Seventeen OECD Countries."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24(2): 126-137.
- Standing, Guy.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Steiber, Nadia and Barbara Haas. (2009). "Ideals or Compromises?: The Attitude-Behaviour Relationship in Mothers' Employment." *Socio-Economic Review*. 7(4): 639-668.
- Steiber, Nadia and Barbara Haas. (2012). "Advances in Explaining Women's Employment Patterns." *Socio-Economic Review*. 10(2): 343-367.
- Steiner, Viktor and Katharina Wrohlich. (2005). "Work Incentives and Labor Supply Effects of the 'Mini-jobs Reform' in Germany." *Empirica*. 32(1): 91-116.
- Storey, D. J. (1991). "The Birth of New Firms—Does Unemployment Matter?: A Review of the Evid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3(3): 167-178.
- Thébaud, Sarah. (2010). "Masculinity, Bargaining, and Breadwinning: Understanding Men's Housework in the Cultural Context of Paid Work." *Gender & Society*. 24(3): 330-354.
- Thelen, Kathleen. (2014).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jdens, Kea G.. (2002). "Gender Roles and Labor Use Strategies: Women's Part-time Work in the European Union." *Feminist Economics*. 8(1): 71-99.
- Tilly, Chris. (1996). *Half A Job. Bad and Good Part-Time Jobs in A Changing Labor Marke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Tolbert, Pamela S. and Shon R. Hiatt. (2010). "The Shape of Things to Come: Institutions, Entrepreneurs, and the Case of Hedge Funds." In Wesley D. Sine and Robert J. David. (eds.). *Institutions and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21: 157-182.
- Torrini, Roberto. (2005). "Cross-country Differences in Self-employment Rates: The Role of institutions." *Labour Economics*. 12(5): 661-683.
- Traxler, Franz. (2003). "European Monetary Un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Berndt Keller and Hans-Wolfgang Platzer. (eds.). *Industrial Relations and European Integration: Trans- and Supranational Developments and Prospects*. Aldershot/Burlington, Ashgate, pp. 85-111.
- Uunk, Wilfred, Matthijs Kalmijn and Ruud Muffels. (2005). "The Impact of Young Children on Women's Labour Supply: A Reassessment of Institutional Effects in Europe." *Acta Sociologica*. 48(1): 41-62.
- van Audenrode, Marc A.. (1994). "Short-time Compensation, Job Security, and Employment Contracts: Evidence from Selected OECD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1): 76-102.

- van Bastelaer, Alois, Georges Lemaître, Pascal Marianna. (1997). "The Definition of Part-Time Work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22.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 van der Lippe, Tanja, Judith de Ruijter, Esther de Ruijter, and Werner Raub. (2011). "Persistent Inequalities in Time Use between Men and Women: A Detailed Look at the Influence of Economic Circumstances, Policies, and Cultu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2): 164-179.
- van Stel, André, David J. Storey, A. Roy Thurik. (2007). "The Effect of Business Regulations on Nascent and Young Business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8(2-3): 171-186.
- van Stel, André, Sander Wennekers and Gerard Scholman. (2014). "Solo Self-employed versus Employer Entrepreneurs: Determinants and Macro-economic Impact in OECD Countries." Zoetermeer, January 2014. SCALES, Scientific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and SMEs ([www.entrepreneurship-sme.eu](http://www.entrepreneurship-sme.eu)).
- Viebrock, Elke and Jochen Clasen. (2009). "Flexicurity and Welfare Reform: A Review." *Socio-Economic Review*. 7(2): 305-331.
- Vroman, Wayne and Vera Brusentsev. (2009). "Short-time Compensation as a Policy to Stabilize Employment." Urban Institute Research Paper, Urban Institute, University of Delaware.
- Weiss, Yoram and Chaim Fershtman. (1998). "Social Status and Economic Performance: A Survey." *European Economic Review*. 42(3-5): 801-820.
- Wellington, Alison J.. (2006). "Self-employment: The New Solution for Balancing Family and Career?" *Labour Economics*. 13(3): 357-386.
- Wielers, Rudi and Dennis Raven. (2013). "Part-time Work and Work Norms in the Netherland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1): 105-113.
- World Bank. (2012). *Doing Business 2013: Smarter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accessed at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3>.
- Wrohlich, Katharina. (2006). "Labor Supply and Child Care Choices in A Rationed Child Care Market." IZA Discussion Paper No. 2053. March 2006.



## 동향과 이슈 2015-7

발행일 2015. 12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인 김성희

03147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Tel.02)6925-4349 Fax.070-8250-4349 [www.labors.or.kr](http://www.labors.or.kr)